

# 해외 한국학 확대에 따른 통일 공공외교 필요성과 전망: 베트남 한국학 현황과 사례

김유리 | 베트남 호찌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부 외국인 전임교수 | kimyuree@gmail.com

## I. 서론

‘해외 한국학(Korean Studies Abroad)’은 공공외교 측면에서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해외 사업으로서 정부와 민간 모두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공공외교 정책 시각에서 ‘해외 한국학’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비교적 최근에 확산된 용어이다. 특히 한류의 폭발적인 인기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한국과 정치경제적으로 거리가 있던 지역과 국가에서도 한류 팬 증가와 함께 한국어 및 한국학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한국어 교육이 확산되고 점차 영역을 넓혀 가면서 기초적인 한국학 수요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적극 부응하여 한국을 알리고 이해와 호감을 증진시키는 공공외교의 한 방법으로서 정부 주도의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의 증가는 대학의 한국학 전공 확대로 이어지면서 역사, 문화 등 인문학적 과정, 그리고 민주화와 경제성장, 남북문제 등 사회과학적 과정으로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아직은 양적으로 급증하는 한국어 수요에 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수십 년간 한국학이 확대되어 온 베트남의 사례와 같이 어느 정도 규모와 체계가 확립된 대학들에서는 인문, 사회과학적 한국학 수요도 점차 늘어나면서 교양이나 전공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 등 통일 관련 강좌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때 한국의 가치와 비전을 반영하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으로 지원, 협력하면서 중장기적인 공감대 형성과 정책 공조 효과를 높이는 통일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통일 공공외교는 해외의 정책 전문가나 기관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장기적 시각에서 국제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한다면 해외 한국학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경제, 문화교류를 통해 높아진 관심을 통일 관련 분야로 연결하여 지속시키고, 교육과 연구를 통해 차세대로 이어지는 통일 공공외교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해외 한국학의 발전 현황과 통일 공공외교와의 연결성을 정리하고, 사례 연구로 동남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한국학 발전 국가인 베트남의 현황과 특성, 대표적인 대학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베트남 사례에 비추어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해외 한국학을 확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해외 한국학과 통일 공공외교

### 1. 해외 한국학의 발전과 변화<sup>1)</sup>

해외 한국학을 간단히 정의하면 ‘해외에서 외국인이 수행하는(배우는) 한국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택, 2006, p.229).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 한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과 함께 한국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배우려는 수요가 확대되었다. 일차적으로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강좌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에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연구가 동일시되기도 한다. 한국어가 해외 한국학에 기초가 되는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기능적인 어학 교육과 한국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문화나 역사 등 기초적인 한국학 내용을 함께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국학’이라고 하면 기능적인 언어 훈련을 넘어서 인문학, 사회과학 등 일반 학문 분과와 연계되는 전문적인 분석을 지향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초로 한국학 강좌가 개설되었던 해외 대학은 1897년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이었다고 하고, 20세기 초에 일본과 미국에 한국 관련 수업이 존재했다고 한다. 해방 후 1970년대까지 해외 한국학은 일본과 미국, 서유럽 등의 몇몇 대학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실질적으로는 199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이하 KF), 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지원을 시작하고,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한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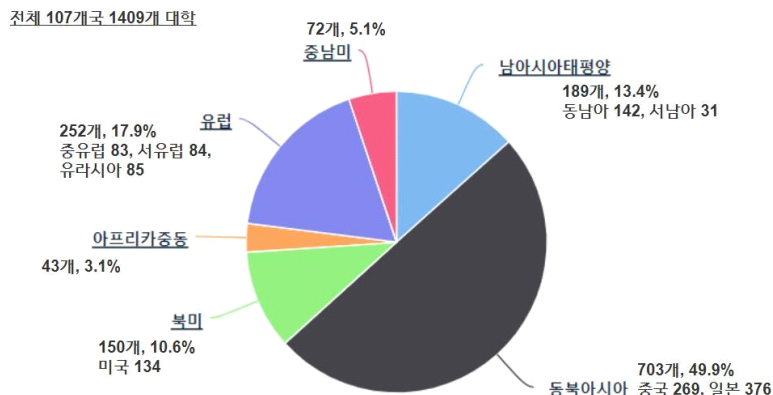
1) 이 부분은 김유리(2020), 「해외 한국학 진흥과 공공외교」, 문경연·송기돈·박지연 편, 『공공외교 이론과 사례』, 도서출판 오름(pp.535~574) 중 해당 부분을 발췌 수정 및 업데이트한 것이다.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관련 강좌 개설 대학은 급격히 확대되었다(곽수민, 2012, p.220). 냉전 시기에 체코, 동독,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토대로 한국어(조선어) 및 북한과 연계된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은정, 2018, p.95). 탈냉전 후 한국(남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언어나 내용도 남한의 한국학으로 대체 확산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는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와 한국학 수요가 더욱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2018년에 KF에서 발간한 『2018 해외 한국학 백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한국학 진흥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 이래 30여 년 동안 해외 대학들의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 수와 범위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1991년 당시 32개 국가의 151개 대학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600개가 넘는 대학으로 확산되었고, 2017년 추산 당시 105개국 1,348개 대학으로 집계된 바 있다. KF에서 홈페이지의 온라인 통계센터를 통해 ‘해외 대학 한국학 현황’과 ‘세계 한국학 지도’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현재는 107개국에서 1,400개가 넘는 대학에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그림 1 참조).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몇 년간 확산 속도에 변동이 있었을 수 있고, 지역별 사정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정확한 숫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추세만 보아도 불과 30여 년간 강좌 개설 대학 수가 거의 10배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현황은 동북아시아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703개로, 단일 국가로는 일본이 376개 대학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269개로 두 국가가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남아시아

[그림 1] 해외 한국학 전체 현황(강좌 개설 대학 수)



자료: KF 통계센터, ‘해외 대학 한국학 현황’ 통합검색에서 제공하는 ‘한국학 전체 현황’ 그래프 및 대학 강좌 수와 비율.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List.do>(접속일: 2023. 10. 20).

태평양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대양주를 합친 지역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대학이 142개로 급속한 양적 성장 중이다.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베트남이 37개(현재 42개 대학 추정), 태국 32개, 말레이시아 19개 등 여러 국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 지역은 서유럽과 중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CIS 국가들을 포함하는 유라시아 지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총 252개 대학 중 서유럽 84개, 중유럽 83개, 유라시아 지역 85개 대학으로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 미주 지역은 북미 지역의 150개 중 미국에서 134개 대학이 운영 중(나머지는 캐나다)이고, 중남미의 72개 대학은 중미와 남미의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다. 규모는 작지만 기업 진출과 한류 붐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이나 서남아, 대양주 국가 등에도 지역 안배와 중장기적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점차 지원을 늘리고 있고,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해외 한국학은 현지의 수요와 그에 부응한 한국의 지원에 따라 양적으로 급성장하면서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대부분 지역에서 한국어 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그와 연계된 기초적인 문화, 역사 정보 제공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해마다 강좌 수와 추이가 변화하고 있으나 한국어 훈련 프로그램만 있는 경우가 절반 내외에 이르고, 아주 기초적인 인문 강좌만 추가된 단계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비교적 심도 있는 한국 관련 인문학, 사회과학 과정의 운영은 아직 북미나 유럽에서 오랜 한국학 전통을 가진 대학들, 또는 일본, 중국의 몇몇 대학에 그치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많은 강좌가 개설되지만, 학문적 깊이와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는 지역별 한국학의 발전 현황을 간단히 개괄하였다.

## 가. 미주 지역

북미, 특히 미국의 한국학 연구는 20세기 후반부터 정착되어 비교적 성숙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학이나 인류학적 접근이 많고, 전담 교수진이나 연구자를 갖춘 대학도 늘어났다. 1960년대부터 콜롬비아대학교, 워싱턴대학교, 캘리포니아주립대학, 하와이대학교 등이 한국어와 한국학 강좌를 운영해 왔다. 대규모 한인 교민사회가 있는 중부와 서부에서도 한국학 개설이 늘어났다. 그러나 학교별, 지역별 편차가 크고, 대학들에서 예산상의 이유로 과정이 축소되기도 한다. 한국 정부의 지원과 미국 내 교민사회의 기부를 계속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중남미의 한국학은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이며, 기업 진출과 한류의 인기로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하였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저변을 넓혀가고 있으나, 대학 형편에 따라 편차가 크고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 정부 지원에의 의존도가 높는데, 대학이나 교수진의 역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단기적 지원이나 행사에 그칠 뿐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 나. 동북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는 한류와 경제 교류에 힘입어 한국어와 한국학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해 왔고, 일본과 중국이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다. 일본에서는 식민지 시기부터 목적성이 강한 한국학 연구가 있었고, 이후에도 주요 대학에서 한국을 다루어 왔다. 독립된 한국학과로 존재하기보다는 일반 전공이나 교양과정에서 한국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여 일본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문, 사회과학적 접근에 주력하는 대학에서는 박사학위자 배출 등 전문성이 구축된 경우가 많다.

중국의 한국학은 한중 수교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였다. 취업 등 실용적인 목적의 한국어 교육에 국한되어 있어 학문적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비중은 매우 적다. 개설 대학도 동북 지역에 편중되어 지역 불균형 문제, 중국인 교원이나 현지 원어민 교원의 수준 편차 문제가 자주 지적된다. 공공외교의 기반이 되는 양적인 확산은 상당히 확보되었으나,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지속되고 있다.

#### 다. 동남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의 한국학도 취업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류, 기업 진출, 관광객 증가 등에 힘입어 2000년대 초부터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의 인지도가 급상승하였고, 태국이나 베트남 등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 후술할 베트남 사례를 간단히 언급하면, 한국과의 수교 직후부터 주요 대학에 한국어 과정이 설치되었고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 한국학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공 과정으로 한국학과를 설치한 대학이라 해도 대부분 한국어에 집중하면서 한국학은 기초적인 문화와 역사에 머무는 경우가 다수이다. 태국 등 다른 동남아 국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어 교육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

교원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 수요에 적절히 부응할 전문인력과 환경, 현지화된 교재가 부족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라. 유럽 지역

유럽에서도 냉전이 끝난 1990년대부터 한국학과들이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특히 2000년대 한류(K-pop)의 영향으로 청소년층의 관심이 확산되었다. 2010년 이후 학생 숫자의 증가세는 더 가팔라졌으나, 학문적인 발전은 아직 미미하다. 대부분 언어와 문화, 인문학을 다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사회과학 분야는 저조한 편이다. 최근 사회과학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유럽에서 일본학과 중국학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성과를 내는 것에 비하면 한국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초보적 수준이다(이은정, 2018, p.99). 대학들도 실용적인 목적을 강조하면서 취업이나 진로에 무게를 두는 경우가 많다. 동유럽에서도 2000년대부터 한국어 수요가 증가하였고, 한류가 유입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 확산되고 있고 잠재력은 높으나, 아직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사실 유럽 대학들은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 연구에 접근성이 높다는 강점이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보훔대학, 프랑크푸르트대학, 영국 SOAS 등은 북한 연구를 포함한 한국학 과정을 운영 중이다(정진현, 2017, pp.280~281). 동유럽도 과거 북한과의 교류가 있었고, 향후 한반도를 아우르는 연구에 대한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다. 유럽의 한국학이 강점을 살리고 통일 공공외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마.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한국학은 오랜 역사에 비해 인지도가 높지 않다. 소련 시기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과 수교 이후 1990년대부터 남한과 연계된 한국학이 확산되었다. KF 등의 지원으로 한국학과가 개설되었고 모스크바국립대학,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극동연방대학 등 주로 대도시의 대학들에 한국어 및 한국학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있다(쿠르바노프, 2018, pp.140~142). 2000년대 이후 경제관계 심화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과정이 급증하였다. 고려인 사회의 존재 등 한국과 역사적인 연결고리도 있어서 잠재력이 있으나, 그 잠재력을 발휘시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역사는 1970년대부터 고려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문학적 접근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한국학이 양적으로 급성장하였고, 2000년대부터 한류로 인해 관심이 더 증가하였다(장호중, 2018, p.194). 아직 기능적인 한국어 과정이나 문화강좌 수준의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고, 급증하는 수요에 부응할 재원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 과제이다.

## 바. 기타 지역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강좌가 확대되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경제 교류와 이민 사회 형성, 유학생 증가에 힘입어 상당수 대학에 한국학 프로그램이 정착하였고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마다 늘어나고 있는 수요와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듯 세계 각지에서 해외 한국학의 인적, 물적 기반이 짧은 시간에 넓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학이 잘 정착되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의 큰 과제이다. 한국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학문적, 정책적 역할을 해줄 현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지원 목표로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대학에서는 아직 어문계열 학과나 동아시아 문화 전공의 일부로서 실용적인 어학 수요에 부응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양적 성장을 토대로 지속성을 가지고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한국학 진흥 사업은 한국 기업 진출이나 한류의 인기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양적 확장과 기반 조성을 우선 추진하였다. 여러 부처와 기관별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고, 학술교류나 문화교류에 일조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연관되어 있다. 대학 수준의 해외 한국학 지원에 대해서는 특히 외교부 산하인 KF와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Academy of Korean Studies, 이하 AKS)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언어와 문화 보급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세종학당, 국립국어원, (재외)한국문화원,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 과기부의 한국연구재단 등도 관련되어 있다.

한국학 진흥사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KF와 AKS의 사업은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서도 서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KF는 해외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면서 해외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하고, 해외 연구자들이 방한하여 연구할 수 있는 펠로십과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해외 대학에 한국 관련 수업을 개설하도록 객원교수를 파견하고, 해외 대학 도서관에 도서와 자료 지원, 교재 개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하여 한국학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한국 관련 행사나 강연을 열어 진출을 모색하는 사업도 수행한다.

AKS에서는 2007년에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출범하였다. 해외 한국학 연구자 지원, 학술기관 간 연구협력이나 한국학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해외 연구자를 지원하는 한국학 세계화랩(lab)사업, 해외 대학을 지원하는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육성사업,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등이 있다.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은 한국학이 정규 강좌나 학과로 자리 잡지 못한 지역의 대학을 선정하여 학과 설립, 연구센터 설립,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지원함으로써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이다(김진량, 2019, pp.296~297). 공공외교 기반을 넓히고 개척하는 성격이 강한 KF와 달리 연구와 교육의 제도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심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업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목표와 지향점이 같다 보니 해외에서 활동이 겹치거나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몇 차례 사업 조정이 있었으나, 현지마다 사정이 다르고, 해외 대학들로서는 KF와 AKS의 사업을 가리지 않고 지원받으려 하고, 인적자원이 겹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이 생기기도 한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학당재단을 출범시키면서는 현지 대학들에도 세종학당이 많이 설립되었고,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는 사업이 또 하나 생겨났다. KF가 세종학당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기관 간 상호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통일 공공외교 관점에서의 한국학

위와 같이 양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질적인 성장과 심화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해외 한국학은 당연하게도 한국 공공외교 사업의 중요한 일부이다. 직접적인 정치적 협상에 대한 기여나 경제적 국익 증진 같은 효과가 바로 가시화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한국의 가치와 지향점, 정책적 목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2016년에 제정된 「공공외교법」의 제2조에서는 공공외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외교”란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공공외교법이 제정되면서 외교부에서 5년 단위로 작성하는 ‘공공외교 기본계획’에서는 한국 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의 5년간을 설정했던 1차 기본계획에서는 세 가지 목표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가이미지 향상, 한국에 대한 이해 확산, 정책 측면에서 우호적 환경 조성 등을 설정했고, 이에 따라 ‘문화 공공외교’, ‘지식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의 3가지로 분야를 나누어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sup>2)</sup>

이 중 해외 한국학 사업은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라는 항목으로 ‘지식 공공외교’에 편제되었다. KF를 중심으로 기추진되고 있던 한국학 진흥 사업을 해외 사업 대상(초·중·고, 대학, 일반인)이나 한국학 발전 수준(도입지역, 후발지역, 발전지역, 선도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문 분야를 다양화하여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것이 주된 추진 방향이었다. 어학과 기초적인 문화에 머물고 있는 한국학 전공 분야를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의 역량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국학 진흥사업은 전략적 분류상 지식 공공외교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한국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여 다른 두 분야, 즉 문화 공공외교와 정책 공공외교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역할로 연결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전공 학생과 연구자가 늘어나고 역량이 강화된다면, 정책 공공외교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한국의 정책 공공외교 추진전략은 일차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관심과 입장을 전달하고 집중적으로 협의할 채널을 구축,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확대하여 국제사회 전반에서도 한국의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한국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산이 필수적이다.

주요국과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확보해야 할 한국의 대표적인 정책 공공외교 주제가 바로 핵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이다.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 주요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별, 지역별로 한반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이해를 제고하는 ‘통일 공공외교’ 개념이 등장한다. 현지마다 다른 특성을 감안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해당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한국이 추구하는 통일을 소개해야 한다. 통일 공공외교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한국에 관심이 있는 해외 대중, 특히 학생과 연구자들을 고려한다면 해외 한국학과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매우 많아진다. 한국과의 관계 심화로 한국학이 상당히 발전한 주요국들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대상을 확대하는

2) 외교부의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2022년 12월까지 연장 시행되었고,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2023년 초부터 시행 중이다.

과정에서도 해외 한국학과 접점이 확대된다.

물론 정책 공공외교 사업 중에서 한반도 정세나 통일 정책을 직접 다루면서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은 일반 대중이나 학생보다는 정책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전문가를 지정하여 진행하는 전략대화나 교류사업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차세대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장차 정책으로 연결될 전문적인 한국 연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한국학의 역할이 연계되지 않을 수 없다.

전략적 분류를 위해 문화, 지식, 정책 공공외교로 분류되어 있기는 했으나, 해외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환경 조성을 전제로 하는 공공외교의 특성상 완전히 단절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통일 공공외교도 예외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성 있고 일관적인 통일 공공외교를 위해서는 정책 공공외교뿐만 아니라 지식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통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에 학문적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해외 한국학의 발전 단계에 따라 현지 학생과 연구자들에 대한 통일 공공외교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외교부의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5년여 동안 변화한 한국의 위상과 국제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외교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함께 기후변화, 보건, 양성평등 등 영역을 다각화하였는데, 당연하게도 한반도 관련 정책 공공외교 사업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계속되고 있다.<sup>3)</sup>

기본 방향이자 목표 중 첫 번째로 나오는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 방안 중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 지지 확대’를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세부 과제의 상당 부분이 직접적인 통일 공공외교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한반도 정세 관련 라운드테이블과 같이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는 것, 재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대상으로 통일 관련 교육이나 강연을 하는 것, 해외 싱크탱크나 연구소의 지한파 연구자 지원,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통일 관련 이슈를 다루는 학술교류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관련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폭을 넓히고 해외 정책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이러한 통일 공공외교의 흐름은 해외 한국학의 발전 및 심화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한국학 진흥 사업은 2차 시행계획에서도 분류상 두 번째 목표인 ‘과학기술·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수록되어 있다. 한국어와 한국학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교부(KF), 교육부(AKS), 문체부(세종학당) 관할의 사업들을

3) 2차 공공외교 시행계획에서는 장기적 비전으로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세 가지 방향이자 목표로 1) 전략적 정책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국익 증진(여기에 첫 번째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증진을 위한 국제 지지 확대” 포함), 2) 과학기술·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3) 디지털·혁신적 공공외교 생태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적시하였다. 현지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한국어 수업 확대 및 체계화 방안과 함께 해외 대학 내 한국학 전공 확대와 전문가 배출을 위한 한국학 지원사업(포럼, 펠로십, 연구교류사업 등)으로 한국학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이 언급되었다. 직접적인 통일 공공외교 사업들이 나열된 정책 공공외교 분야와 전략적 분류는 다르지만, 한국과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를 육성하는 사업은 서로 긴밀히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다.

통일 공공외교라는 사업의 대상이 누구며 어떤 방식의 사업을 지칭하는 것인지 범위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는 해외 한국학 사업도 통일 공공외교에 포함하여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상대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집단이나 정책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김태환(2021)은 공공외교 중 정책 공공외교의 한 사례로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를 분석하면서 역대 한국 정부의 통일 및 남북문제 관련 정책 공공외교를 정리하였다(표 1 참조).

정부의 성격과 세부 정책에 따라 초점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 정부에서 내세우는 기본적인 가치는 ‘자유’와 ‘평화’이며, 이 가치에 기반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성 있는 통일 공공외교를

<표 1> 한국 정부의 통일 공공외교 전략 변화

역대 정부	공공외교 발전 양상	통일 공공외교 사업 내용
노무현	‘공공외교’ 개념 시작, 홍보 위주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F에서 2006년부터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와 ‘서울-워싱턴 포럼’ 시작(한미 동맹 관계의 균형적 ‘재설정’을 위해서 미국 정책 네트워크와 소통)</li> <li>통일연구원은 국제전략연구소(CSIS), 헤리티지재단 등 싱크탱크들과 유사한 대화 진행</li> </ul>
이명박	공공외교의 본격적 시작 및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F의 미국 내 한국학 교수직 설치 프로그램을 싱크탱크로 확대하여 주요 싱크탱크에 한국연구 석좌직(Korea Chair) 설치 추진(2009년 CSIS, 2014년 브루킹스 연구소, 2019년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li> <li>통일연구원은 미국 싱크탱크들과 워크숍 진행(주로 대북 정책, 북한 상황, 한미동맹, 특히 2011년에는 북한 체제 전환이나 통일 편익 등 북한의 변화 관련 주제에 집중)</li> </ul>
박근혜	‘통일 공공외교’ 개념 도입, 정책 공공외교 본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6년 공공외교법 제정</li> <li>한반도 경제 이해 제고와 통일 지지 세력 조성을 위한 회의체(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 정책설명회(강연회, 언론기고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통일부, 외교부의 국제 협의체), 문화 행사(한반도 통일 주제의 해외 활동) 등 사업 시행</li> </ul>
문재인	정책 공공외교의 제도화와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싱크탱크, 회의체,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li> <li>‘통일’보다는 ‘평화’에 초점을 두어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 중심의 한반도와 지역 정책으로 정책 공공외교의 내용 구성(‘평화통일 공공외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신한반도체제’ 등)</li> </ul>

자료: 김태환(2021) 중 ‘3. 한국 역대 정부하에서 정책공공외교의 진화’ 부분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발췌 정리하였음.

고민해야 한다. 미국 등 주요국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정책 공공외교도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국제사회 전반에서 국가별로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를 비롯해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 일반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통일 공공외교의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적절한 내용과 방법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한국학을 통일 공공외교와 연계할 때 주요 대상은 대학에 재학하는 한국학 전공 학생들이 된다. 물론 한류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를 접하기 시작한 중고등학생들부터 일반 대중까지 포괄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류를 넘어 한국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을 가지고 전문 연구자나 기관 종사자가 될 가능성을 생각할 때 대학생, 대학원생, 차세대 교수진 등이 우선적 대상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한국과 관련한 자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는 학술적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확한 지식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해외 한국학에 통일 공공외교를 접목할 수 있다(이상신, 2022, pp.24-25).

한국학이 개설되어 있는 해외 대학의 교과 과정이나 여러 학술 프로그램에 관련 과목이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 대학원 과정이 있거나 세부 전공으로 한국학 중 사회과학 분야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는 대학들이 우선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학 기초 단계라면, 한국어 훈련에서 기본적인 한국 역사나 문화로 분야를 확산할 때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는 차원에서 추가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한국학 연구가 심화된 대학이 많은 지역은 이미 교과목도 상당수 개설되어 있다. 국제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그런 주요국이 아닌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각각의 한국학 발전 상황에 맞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최근 한국학 수요와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통일 공공외교와 한국학 진흥 사업의 수요와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I. 베트남의 한국학 확대와 현황

#### 1. 베트남 한국학의 현주소

지난 2022년 말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정치, 안보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수십 년간 확장되어 온 관계 위에 한류의 문화적 파급효과가 더해져, 베트남은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학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교 직후부터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증가하면서 사업, 취업 등 실용적인 수요가 먼저 반영되었다. 지금도 베트남의 한국학은 주로 실용적인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한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발전 등 다양한 분야로 수요와 공급이 함께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학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국가가 된 일차적인 이유는 그만큼 빠르게 증가해 온 경제관계다. 경제를 통해 우호적으로 발전해 온 관계 위에 인적 교류와 한류를 통한 문화적 관심이 증폭되었고, 이제 그 관심이 대학 등 학술기관을 중심으로 인문, 사회과학적 학문에 대한 수요 증가까지 이어지기 시작한 단계이다. 실용적 목적으로 시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확장해야 한다. 한국학을 통한 학술연구와 교류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그러한 이해 제고와 관계 증진에 중요한 기반을 조성한다.

지난 30년간 변화·발전해 온 베트남의 한국학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2년 수교 직후 1993년 하노이, 1994년 호찌민시 국가대학교에 한국어 강의 및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다. 한국어 교육이 우선이었고, 한국학이라는 명칭이 있어도 실제로는 한국어에 전념하거나 일부 문학, 문화 수업을 진행하는 차원이었다. 수도인 하노이에서는 1993년에 하노이국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하노이 인사대)에 한국어 강의를 최초로 개설되었고, 이는 곧 1995년 동방학부 내 한국학전공으로 자리를 잡았다. 같은 하노이의 하노이국가대학교 외국어대학(하노이 국립외대)에서는 1994년에 한국어 강의를 시작하여 1996년에 한국어언어문화학부가 개설되었다.

베트남 남부의 중심도시인 호찌민시에서는 1994년 호찌민시국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호찌민 인사대) 동방학부에 한국학 전공이 개설되었고, 해당 전공이 2010년부터 한국학과로, 2015년부터 한국학부로 발전하여 운영 중이다. 사립 호찌민외국어정보대학교에서 1995년부터 동방학부 내에 한국어과를 개설했고, 사립 홍방국제대학교에서도 1999년부터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등 여러 대학에서 일찍부터 한국어 강좌 또는 한국학과 설립이 추진되었다. 현재까지 베트남 내 한국어 또는 한국학 강의를 개설된 대학은 39곳 이상으로 추정되며(표 2 참조), 한국문화원이나 교육원, 세종학당 등 민관이 협력하는 기관도 있고, 사설학원도 많이 개설되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왔다.

<표 2> 베트남 대학 내 한국학 현황

	대학 형태	대학명	학위 형태	소속기관(학부)	프로그램명	개설연도
1	사립	FPT대학교-컨터캡퍼스	학사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	2019
2	기타	껀터대학교	어학(비학위)	한국학센터	한국어	2015
3	사립	나트랑 태평양대학교	학사	동방학부 한국학과	한국학	2017
4	국립	다낭외국어대학교	학사	일본어-한국어-태국어학과	한국어	2007
5	사립	다이나믹대학교	학사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	2019
6	국립	달랏대학교	학사, 어학	국제학부 한국학과	한국학	2004
7	사립	동나이기술대학교	학사	동양어학부 한국어학과	한국학	2020
8	사립	동아대학교	학사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 한국문화	2020
9	사립	락흥대학교	학사, 어학	동방학부 한국학과	한국학	2003
10	사립	바리어붕따우대학교	어학(비학위)	동방학부 한국학과	한국학	2014
11	사립	박장산업기술전문대학교	전문학사	한국어과	한국어(상성전자 직원용 3년 과정)	2013
12	사립	반랑대학교	학사	동방학부 한국학과	한국학	2017
13	사립	반히엔대학교	학사, 어학	인문과학학부 한국학과	한국학	2007
14	국립	베일외국어기술전문대학교	학사	한국어학과	한국어	2007
15	국립	베트남외교아카데미	어학(비학위)	High Quality Program for Undergraduate		2021
16	국립	베트남국립경제대학교	어학(비학위)	아시아-태평양 경영연구소 한국센터	한국학	2010
17	국립	베트남사회과학원	어학(비학위)	동북아연구소	한국-북한 연구센터	
18	사립	빈즈엉대학교	학사	동아시아학 한국학과	한국학	2021
19	기타	사이공문화예술관광대학교	학사	외국어학과	한국어	2008
20	기타	연론커뮤니케이션대학교	어학(비학위)		한국학(e-스쿨 속명여대)	
21	사립	응우옌땃탄대학교	학사, 어학	동방학부 한국학과	한국어	2011
22	국립	타이응우옌대학교	학사	외국어학부 영어/중국어학과	영어-한국어, 중국어-한국어 전공	2016
23	사립	탕롱대학교	학사, 어학	언어학부 한국어학과	한국어	2016
24	국립	투득기술대학교	학사	한국어학과	한국어	2013
25	사립	페니카대학교	학사	한국어학과	한국어학	2021
26	국립	하노이과학기술대학교	학사	외국어센터	한국어	2014
27	국립	하노이국립외국어대학교	학사, 석사	한국언어문화학부	한국어	1996
28	국립	하노이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동방학)	동방학부 한국학과	한국학	1993
29	국립	하노이대학교	학사, 어학	한국어과	한국어	2002
30	국립	하노이산업대학교	학사	외국어학부 한국어 및 한국문화학과	한국어, 한국문화	2018
31	사립	하노이폴리텍대학	어학(비학위)	한국언어문화학과	한국어	2014
32	국립	하롱대학교	학사	한국어학과	한국어	2019
33	국립	호찌민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학사, 석사, 어학	한국학부	응용한국학, 한국언어-문화학 외	1994
34	국립	호찌민경제재정대학교	학사	국제언어 및 문화학과	한국어	2019
35	사립	호찌민기술대학교	학사	동방학부 한국학과, 한국어과	한국학, 한국어	2015
36	국립	호찌민사범대학교	학사	한국어학부	한국어 통번역 및 관광	2016
37	사립	호찌민외국어정보기술대학교	학사, 어학	동방학부 한국학과	한국학	1995
38	사립	홍방국제대학교	학사, 석사	외국어학부 한국학과	한국학	1999
39	국립	후에외국어대학교	학사	외국어대학 한국언어문화학과	한국어, 한국문화, 통번역	2004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 KF동계센터, '해외대학한국학현황' 통합검색을 기본으로 하고 Tran Thi Huong(2020)을 추가로 참고하여 작성함.  
<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List.do>(접속일: 2023. 10. 20).

〈표 2〉에 나타난 베트남 대학의 한국학 현황은 2021년 개설 대학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전공 개설이나 강의 수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3년 현재 대략 42개 대학교에 1만 8천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4)</sup>

비학위 어학 프로그램으로만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어학 교양 과정 중의 하나로 개설되는 경우, 언어학부나 동방학부 내 세부 전공으로 개설되는 경우 등 상황이 다양하고, 그러다가 독립된 학과나 학부로 발전하면서 학과명이나 수강생 수가 다시금 변화하게 되어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에 부응하려는 학교들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의 한국(어)학 전공이나 학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비전공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교양이나 선택과목, 학외에도 개방된 어학원 형식으로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학위 과정과 별도의 어학원으로 운영되는 세종학당의 경우는 대학이 아닌 외부의 학원 형식으로 운영되며 2018년 기준 12곳이 운영 중이었다. 세종학당은 한국문화원이거나 영사관과 연계한 경우, 베트남 대학과 한국의 대학 또는 전문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 베트남의 대학이 독자 운영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이다. 대학 내 한국학연구소도 점차 늘어나, 1998년에 최초로 베트남사회과학원에 설립된 한국연구센터를 시작으로 2006년 하노이 인사대, 2009년 호찌민 인사대 등 한국학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대학들에 한국연구센터가 설립되었다(김홍구, 2018, p.222).

한국(어)학 학회나 저널의 창간과 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학 전공 학과의 베트남인 교수진을 중심으로 2011년에는 한국학술연구회가 설립되었다(Tran Thi Huong, 2020, p.214). 주기적으로 한국어 교육 또는 한국학 연구와 관련하여 학술회의를 하거나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여는 등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하노이 인사대, 하노이 국립외대, 호찌민 인사대 등 주요 명문대 교수진을 중심으로 하여 크고 작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여러 강사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이 빠르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 대부분 역량이 집중되고 있고, 한국학 연구 부분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경제적, 실용적 목적의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여전히 압도적이고 한류로 인한 상승효과도 대부분 어학 훈련 강화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 사이에서 한국어가 아닌 다른 한국학 분야에 대한 수요가

4) KF하노이사무소에 최근의 한국학 현황 업데이트를 문의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변동이 심하고 최근 2-3년간 전공과정이나 강의 개설 수가 폭증하고 있어, 두세 달 사이에도 변화가 심하여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대략적으로 제공받은 수치이며, 베트남 다음으로 많은 태국의 18개 대학 4천여 명 재학생(추정)에 비해서도 대단히 많은 수치이다.

있다고 해도, 현재 한국(어)학과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대부분이 한국어 교육에 특화되어 있어 다양한 한국학 수업을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넘쳐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만 부응하기에도 벅차서 다른 분야의 과목을 확대하거나 내용을 고민할 여력이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대부분 대학교에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 접근을 하는 한국학 교육까지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한국어만이라도 체계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원의 역량 편차 문제가 많이 제기되다 보니 특히 교재 개발을 위한 노력을 많이 강조한다. 학습자의 수준이나 목표에 적합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이나 새로운 교원을 위한 교수법 교육,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다(Tran Thi Huong, 2020, pp.231~232).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 수요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실용적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과 베트남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학생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가 계속 늘어나면 베트남의 한국(어)학 교육과 연구도 점차 범위가 확장되고 내용도 다양화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과 전망은 베트남 내 한국학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인사대나 외국어대 등의 사례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다. 한국어 교육 비중이 매우 크고 실용적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 분야를 확대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비교적 오랜 기간 양적 성장을 기반으로 전공을 다양화하고 대학원 과정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호찌민 인사대와 하노이 국립외대 사례를 조금 자세히 제시하였다.

## 2. 베트남 주요 대학 한국학부 대표 사례

베트남 남부의 한국학을 대표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는 베트남국가대학 호찌민시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이하 호찌민 인사대) 한국학부는 한국의 역사·문화·정치·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연구를 지향하는 독립된 학부(Faculty of Korean Studies)로 운영 중이다.<sup>5)</sup>

한국과 베트남 수교 직후부터 늘어난 수요에 부응하여 1994년에 동양학부 동아시아학과의 세부전공(한국학 전공)으로 개설되었다. 2010년 동양학부에서 분리되어 베트남 최초로 독립된 한국학과가 되었고, 2015년부터 완전히 독자적인 하나의 한국학부로 승격되어 ‘한국학’이라는 이름으로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다.

5) 이하 내용은 호찌민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부 홈페이지와 학과 소개 페이지 등(<https://hcmussh.edu.vn/tin-tuc/nganh-han-quoc-hoc>, <https://hcmussh.edu.vn/hanquoc/tongquan>)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접속일: 2023년 11월 2일).

30여 년간 이어진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경제관계 심화, 최근의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 규모와 내용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기 학부다. 1994년 동양학부 동아시아학과에서 일본학, 중국학과 함께 모집한 한국학과 학생 35명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매년 10:1의 경쟁률에 200명에 가까운 입학생을 받는 학부로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기관과 기업체의 후원, 한국 유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온 교수진의 많은 노력이 있었고, 학부를 졸업한 학생 대부분이 한국 기업 또는 한국 관련 기관에 좋은 조건으로 취직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뒤따른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2014년부터는 직장을 다니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야간 학부 프로그램도 개설하여 기회의 문을 넓히기도 하였다.

2015년에 동양학부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한국학’ 학위를 수여하는 한국학부로 승격된 것은 베트남 고등교육 체계에서 최초 사례이다. 국가대학인 호찌민 인사대에서 한국학이 독자적인 학부를 형성한 것은 베트남 내 한국학의 위상이 확립되었고 인정받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고학력 교수진이 늘어났고, 학생들도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거나 취직한 직장에서 인정받고, 유학으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빠르게 발전한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특히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에 한국 기업을 포함하여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점, 장학금이나 인턴십 등 기회가 많은 점 등이 매력 요인이 되어 입학 경쟁률과 성적 커트라인이 가장 높은 학부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호찌민 인사대 한국학부 학생들은 학부 1학년과 2학년 동안 한국어 훈련에 집중하고, 3학년이 되면서 세 가지 세부 전공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한국 어문학 전공, 한국 문화-사회 전공, 그리고 한국 경제-정치-외교 전공으로 나누어지며,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되 전공에 따라 다양한 한국학 과목을 필수 또는 선택으로 수강한다. 졸업 요건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을 취득해야 해서 한국어 실력 향상에 많이 노력하고 있다. 수업 외에도 학부에서 조직하는 크고 작은 학술대회나 세미나가 종종 열리고, 베트남 남부 지역 여러 대학이나 한국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젊은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한국의 많은 대학 및 기관과 교환학생을 포함한 학술, 연구 교류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과의 접점도 계속 증가해 왔다.

2022년부터 한국학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30명의 석사생이 수학 중이다. ‘한국학’으로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례는 아직 동남아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도전이다. 학부 졸업 후 취직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대학원 운영에 대한 걱정도 있었으나 30명의 모집 정원을 초과하는 지원율을 보였고, 대부분이 직장인으로 직장이 가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진행되는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대학원은 이미

학부에서 한국어를 일정 수준 이상 했다는 전제로, 한국어 교육보다는 다양한 한국학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번역 등 일부 한국어 심화 과정도 선택과목으로 배정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에 치중하지 않기 때문에 졸업 요건의 한국어 능력은 TOPIK 4급으로 오히려 학부보다 낮게 정해져 있다. 한국어보다는 전문적인 내용의 한국학을 다양하게 접하고 전문 분야와 논문 주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의 한국학 대표 사례로는 하노이 인사대와 하노이 국립외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2018년부터 독자적인 한국어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하노이 국립외대 사례를 간단히 제시한다.<sup>6)</sup>

외국어대학인 만큼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에 특화하고 있는 하노이 국립외대는 1994년에 제2외국어로 한국어 강좌를 시작하였다. 동방학부 소속으로 1996년부터 3년제 정규반을 모집하는 과도기를 거쳐 1997년에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독립적인 4년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공’으로 33명의 학생을 모집하였다. 동방학부 소속에서 독립하여 2012년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학부’로 승격되었고, 이후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9년 기준으로 누적 졸업생 수가 1,300여 명을 넘어섰고, 재학생 수는 약 8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세부 전공은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학’으로 분류되어 있다. 학부 저학년인 1학년과 2학년의 네 학기 동안 한국어 능력 향상에 집중하여 훈련을 진행하고, 3학년부터 전공을 나누어 특화된 한국어학 또는 한국어 교육학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 특화된 대학으로서 AKS의 지원을 받는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 중이고, KF의 글로벌 e-스쿨 사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한국학 수업을 다양화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2018년에는 베트남 최초로 한국어학 석사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베트남의 상황에 맞게 한국어 교육과정이나 교원 연수 과정을 시행하고, 적절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의 어학 교육 관련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어를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교육하는 훈련을 받고, 졸업생들의 진로는 학업을 계속한다면 대학 교원이거나 연구자, 바로 취업한다면 번역 및 에디터, 직장 내 통역사, 국제교류사업 지원, 관광 가이드, 중고교 교사 등 한국어를 직접 활용하거나 가르치는 직업에 진출하고 있다. 졸업생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베트남의 사회 초년생으로서는 비교적 급여가 높은 좋은 직장(한국 기업 포함)을 갖는 경우가 많아 입시 경쟁률이 높은 인기 학과다. 바로 취직하지 않더라도 한국 유학 기회도 많은 편이고, 한국어 능력을 활용한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어 매년 신입생 지원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6) 하노이 국립외대 사례 부분은 Tran Thi Huong(2020)의 219~230쪽의 해당 부분과 하노이 국립외대 홈페이지 소개글(<https://ulis.vnu.edu.vn/gioi-thieu-khoa-ngon-ngu-va-van-hoa-han-quoc/>)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아직 베트남 내 한국어 또는 한국학 과정이 개설된 대부분 대학에서 한국어 훈련을 넘어서는 한국학 수업이나 연구가 독립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역사가 오래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독보적으로 성장해 온 위의 두 대학 교육 내용도 아직 기능적인 한국어 훈련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어 교육을 심화하거나, 한국학으로 교육과정을 확장하거나 분야를 다양화하려 할 때 곧바로 한계로 작용하는 문제가 교재와 학술 자료다. 한국어 교원을 포함한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학술 자료 접근과 활용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 생산되는 학술 자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해외 학술 자료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낮다. 교재나 자료 제공을 거의 전적으로 한국의 기관이나 대학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마다 베트남 사정에 맞고 표준화할 수 있는 교재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요구하는데, 문제는 교재 개발 역량도 부족하거나 재정적인 부담 때문이 이 또한 한국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어의 비중이 크고 아직도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보니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은 차치하고서라도 한국어를 가르칠 교수진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학 과목을 개설한다 해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다. 독립된 학과로서 전공학위 과정을 설치한 대학들은 한국어와 한국학 수업을 함께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은 기초적인 역사, 문화, 일부 정치경제 과목이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다. 대표 사례의 두 대학과 같이 규모가 크고 비교적 다양한 교수진을 갖춘 대학들을 중심으로 수업의 종류나 내용, 다루는 범위도 확대 개선되고는 있으나, 그만큼 학생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양화하고 있어서 이에 부응할 전문인력과 환경은 여전히 부족하다.

어느 정도 규모와 체계를 갖추고 수요에 부응하느라 노력하고 있는 베트남 대학들에서 한국학을 확대 발전시키고 학술적 성과를 진작시키려면 한국에서도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과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이 공공외교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려 한다면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학 수업과 연구를 위한 자료 지원과 학술교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통일 공공외교를 염두에 둔다면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베트남과 같이 급속하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해외 한국학을 지원하면서 통일 공공외교 목적에 맞는 내용을 진흥하려면, 현지 대학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자료 지원은 물론, 한국의 기관이나 연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를 확대하고 수업이나 연구가 발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 입장에서 한국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한국어학 및 기초적인 한국 관련 교육의 양적 확산은 귀중한 공공외교 자산이다. 통일 공공외교 측면에서 이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를

찾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함은 물론 그에 적절하게 부응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제도적 협력을 고민해야 한다.

## IV. 해외 한국학의 통일 공공외교 수요와 효과 (베트남 사례)

### 1. 베트남 한국학 현장의 수요 창출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한국학 대학들은 아직 급증하는 어학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주력이고, 한발 더 나아가 인문, 사회과학적 전공으로서 한국학을 더 연구하려는 수요는 이제 기초를 닦는 단계이다. 베트남의 대표적 대학들과 같이, 비교적 오랜 기간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교수진의 역량과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힘입어 체계를 갖추고 수업을 다양화할 역량이 강화된 소수 대학을 중심으로 내용이 심화되는 정도다. 통일 공공외교 시각에서 현지에 이미 있을 만한 수요를 찾기보다는, 이제 관심이 다양화하고 있는 현지 대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수요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통일 공공외교 대상이 될 만한 해외 한국학 수요층은 한국어 훈련이나 기초적인 한국학 수준을 넘어선, 보다 심화된 수준의 한국학 고학년 전공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을 들 수 있다. 베트남 대학들에서 한국 관련 대학원 과정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동방학부나 언어문화학 부 등의 세부 전공으로 가능하다. 베트남의 고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커지면서 최근 한국학 석사과정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박사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 한국학 대학원 과정이 있다면, 전문성에 대한 목적이 뚜렷한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술적 수요에 부응하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근의 한 사례로 호찌민 인사대의 한국학 석사과정을 들 수 있다.

지난 2022년 가을 학기(베트남은 9월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됨)에 첫 신입생을 받고 개설된 호찌민 국립인사대의 한국학 석사과정은 한국어 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부과정과 달리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한국학 교육과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한국의 일반적인 대학원 과정과 유사하게 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이 직장인인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업은 주중 저녁 또는 주말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수업은 총 6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논문작성이 15학점 정도에 해당되므로 실제 수업으로는 45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1학점당 15시간의 수업이 배정되는 것도 한국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이수 학점은 적지 않은 편이다. 학생이 특정 기준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교수와 함께 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 중 최대 12학점까지 연구 수행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석사과정의 교과목은 <표 3>과 같다.

<표 3> 호찌민 국립인사대 한국학부 석사과정 전공과목

구 분	과목명	
교양필수	철학, 베트남문화사(대학원 전체 필수과목)	
전공필수	한국학개론	한국학 연구방법론
	한국인의 가치체계	한국 산업화 과정과 경제사회 변화
전공선택	인물을 통해 본 한국의 역사	동아시아 속의 한국문학
	문화적 소통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세계질서와 한국의 지정학
	졸업논문 설계와 연구방법	한국 생활문화사
	다문화주의와 한국사회	현대 한국 생활 속의 종교
	한국 민속학	한국 전통 미학
	국제관계 속 한반도 분단과 통일	한국 발전 과정의 정치경제
	한국의 기업과 기업문화	세계화 시대 한국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문학을 통해 본 한국 사회문화	주제 번역
	베트남어와 한국어 비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학을 위한 학술한국어	(올해의 주제)

자료: 호찌민 국립인사대 한국학부 석사과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한국어 위주의 수업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을 포괄하고 있어, 실용적 수요에 우선 부응하는 학부에 비해 보다 폭넓은 이해와 분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한 과목으로는 직접적으로 분단과 통일을 다루는 수업도 있고, 넓게 보아 남북관계를 포함하는 한국의 지정학, 정치경제 등의 과목이 존재한다. 학생들의 구성은 매우 다양하다. 학부 졸업 직후 한국 유학에 대한 대안으로 학업 지속을 선택한 학생, 타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 수십 년간 한국 기업 또는 관련 사업에 종사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키워 온 나이 많은 경력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석사과정 개설은 학부의 한국학 전공이 꾸준히 높은 입학 경쟁률과 학업 수준,

졸업 후 성과를 냈기에 가능했다. 호찌민 인사대의 한국학부는 학부 입학시험에서 거의 만점을 받아야 할 만큼 경쟁이 치열한 인기 학부로 매년 자리매김해 왔고, 그 경쟁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어는 물론 한국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화된 수요를 창출하였다. 학부에서 3학년에 진학하면서 세부 전공을 나눌 때, 어학이나 사회문화보다 경제-정치-외교 전공을 더 많은 학생이 선택하고 있어 사회과학적인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학부에 입학할 정도의 대학생들이라면, 한국 대중문화와 한류스타에 대한 관심은 이미 청소년기에 한참 껴어서 일상화된 상태다. 대학에 입학하고 3학년쯤 진로를 정하는 시기에는 문화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등 한국학의 제반 이슈에 더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용적, 학문적 수요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2022년에 통일연구원에서 해외 한국학 전공을 설치한 해외 대학들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sup>7)</sup> 해외 대학의 교수진들도 점차 한국 전문가로 성장하려면 언어 외에 사회과학적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 개설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 특히 대중문화 등 언어문화적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답하였다. 아직도 폭증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양적 확대가 우선시되는 것이다. 통일 교육 관련하여서는 남북관계나 북한 사회, 동북아 안보, 한반도 통일, 한국의 외교 등의 강의에 대한 수요가 현재 제공되는 강의 수보다는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이 있어서 미래 수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이상신, 2020, pp.44~47). 한국학 교수진들이 통일연구원의 수요조사임을 알고 답변한 것이어서 실제보다 긍정적으로 대답한 것일 수도 있으나, 향후 한국학 전공 과정의 내용 심화와 질적 성장을 위해서 남북관계나 동북아 국제관계 등의 수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확인한 셈이다.

결국 한국어 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면서 해외 한국학 발전과 상승효과를 내려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수요와 전문성을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 지역의 대학들이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누군가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적절한 내용과 인적, 물적 지원을 제공한다면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이 있다. 당장은 대부분 한국어, 문학, 문화 등 이미 개설된 기본적인 과정을 확대하고 심화하는 강좌에 대한 수요가 급하다. 통일 공공외교의 영역에 직결되는 남북관계, 통일, 북한에 대한 강의는 상대적으로 극히 적고, 교수진의 역량에 따라 편차가 크고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7) 이 조사는 280여 개의 해외 한국학 개설 대학에 설문조사 이메일을 발송하여 총 50개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대부분 한국어와 한국 문학, 일부 역사나 대중문화 등의 수업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교의 교수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전히 한국어나 문화 관련 강좌의 양적 평정에 대한 수요가 시급하지만, 장기적으로 사회과학 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수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신·이재원 (2022),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KINU 정책연구시리즈 21-04, 통일연구원.

경우도 많다. 눈앞의 수요가 적고 교원이나 적절한 교재, 자료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베트남 사례를 통해서 보면, 향후 통일 공공외교 자산으로서 한국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앞서 언급한 대로 통일 관련 한국학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한다. 대학, 대학원, 연구센터 등에서 교수진과 학생들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강의나 연구를 원하는 수요가 꾸준히 생겨나야 한다. 통일 관련 내용들이 학문적 또는 사회적 성취에 효용이 있다고 인식하고, 그 관심이 지속돼야 한다. 물론 소수의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통일 이슈나 남북관계를 깊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통일 공공외교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대학, 대학원 과정 전반에서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 영역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트남은 하노이나 호찌민 등의 대도시에 상당한 규모의 한인 교민사회가 형성되어 있고, 한국 기업들의 진출과 활동이 많아서 한국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다. 교환학생을 비롯하여 한국과의 학생 교류도 많고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게다가 한류의 인기 덕에 관심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관심이 증가하면서 대학 학부의 한국학 수요 증가로 이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초적이거나 통일 관련 교육을 편성하고 육성하면 점차 대학원생과 전문가도 늘어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정규 수업이 아니더라도 특강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세미나 등), 학생들의 클럽(학술 동아리 등) 활동 등을 통해 관심을 진작시킬 수 있다.

둘째로, 이렇게 늘어나고 창출되는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물질,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지 교수진, 자료 제공 등 교육 역량과 관련되는 부분이다. 베트남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원은 다소 편차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수급되고 있으나, 전문 분야별 한국학을 가르칠 만한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한국학과가 개설되어도 통일 관련 과목이나 내용을 담당할 교수진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반도와 남북관계 등 통일 관련 사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갈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인적자원을 수급,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연구소에 제도적인 기반이 형성되고, 가용한 교재나 자료가 지원되어야 한다.

호찌민 인사대의 경우 다른 베트남 내 대학보다 역량 있는 교수진이 많고 자료도 많이 보유한 편이지만, 연구센터에 비치된 자료의 활용도나 한국 자료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오프라인 자료는 한국의 기관에서 후원받거나 직접 구입해야 하고, 온라인 자료나 논문 등은 한국의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전송받는 등 교재나 연구 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도 자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수업 및 연구 자료 부족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학부 차원에서 젊은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연수 교육을 종종 개최하는데, 통일 공공외교 차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한국의 해당 전공 연구자와 연계되어 협력하거나 자료 공유, 공동 수업 또는 연구를 기획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요가 창출되고 그에 부응할 만한 교육 역량이 갖추어져 간다면 이를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고 자립하여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도록 돕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 공공외교와 해외 한국학이 정책 차원에서 효과를 내고 장기적으로 공감대와 협력을 이룰 기반을 조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온오프라인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연구자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기관이나 연구소, 대학들과 연계하는 공동연구나 학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생이나 연구자의 인적 교류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한반도와 통일 이슈를 다루는 한국의 기관이나 전문가들과 긴 안목으로 학술교류를 한다면 한국학 역량 강화와 함께 통일 공공외교의 지속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서 베트남 대학을 방문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행사는 종종 있었으나 일회성으로 의견을 교환해 보는 정도였다. 보다 지속성 있는 공동연구나 협력 프로그램으로 반복과 심화를 모색한다면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해외의 시각과 분석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이상신, 2020, pp.80~81).

그러나 한국의 인적, 물적 지원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으로만 지속될 경우 자칫 한국의 지원에만 너무 의존하고 그것이 사업의 전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외 한국학 프로그램들이 한국의 재정 지원을 받아 대학 내 입지를 확보하고 한국학 교육과 연구를 주도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출발점이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국의 지원에만 의존하게 되어서는 곤란하다. 공공외교 차원에서 계속 연계하고, 심도 있고 장기적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하겠으나, 현지의 역량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는 노력도 있어야 한다. 현지 대학과 현지 기관들의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고 인적, 물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통일 공공외교 차원의 기대효과

통일 공공외교는 한반도 문제나 대북 정책에 대한 한국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이해를 높여 협력의 폭을 넓히는 것이 목표이다. 대상이 되는 지역과 국가별로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효과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와 이슈를 강조하면서 접근해야 한다. 해당 국가의 특성에 따라 통일 및 남북한 관계 관련 효과적인 협력 분야가 다를 수 있고, 대북 정책이나 협력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다양할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 유교적 전통 등 역사적,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고, 제국주의 시기의 식민지 경험, 독립운동과 남북 분단, 전쟁 등의 경험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전까지는 북한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던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수교 이후 30여 년간 경제, 사회, 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온 한국-베트남 관계는 국제사회와 동아시아 역내 정치, 안보 분야 등에서도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와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과도 정치적인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바, 향후 대북 정책 공조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일정한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하다. 베트남에 대한 중장기적 통일 공공외교는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 핵문제 해결 및 대북 경제협력 모색 등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효과를 낼 방안을 찾는 기초 작업이 된다.

사실 1992년 수교 당시 한국이 베트남과 접근을 추진한 배경에는 경제적 잠재력과 함께 정치적인 필요성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었다. 당시 베트남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북한과 분리하여 인식하기 시작했고, 한국과 실용적인 경제관계를 확대하면서도 북한과도 정치적 명분을 내세운 형식적인 관계를 지속했다. 한국에게 베트남과의 수교는 경제적 기회임과 동시에 탈냉전 시기 외교적 지평을 넓힐 정치적인 기회이기도 했고,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1993 외교백서, pp.142~144). 이후 한국-베트남 관계는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급증하면서 경제가 최우선이 되었고, 경제를 통해 두터워진 우호적 관계가 다시 정치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2001년 ‘포괄적 동반자 관계’,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공식 관계를 격상하였다.

2000년대 이후 일상화된 정상외교 때마다 정치적 협력에 대한 언급도 늘어났다. 수교 15주년이었던 2007년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사회적 관계 증진과 동시에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기도 하였고(2008 외교백서, p.56), 2014년에 방한한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대화를 촉진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등의 “한국 측의 제반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도 했다(2015 외교백서, pp.102~103). 한국 정부가 요청한 대북 협력에 대해 베트남도 “북한이 개혁, 개방에 나서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응하는 등(2016 외교백서, p.108), 한국의 대북

정책에 베트남이 호응하고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관계는 한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계속되고 있다. 수교 30주년을 지나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정치적 우호 관계가 거듭 격상되면서 통일 공공외교의 지평도 더욱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에서 베트남이 가지는 또다른 중요한 의미는 베트남이 유지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다. 베트남은 북한과 명목상 정치적인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베트남은 한반도 관련 외교무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위자임을 각인시켰다. 비록 회담은 결렬되었으나, 이 베트남 방문을 기회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양국은 공식적 우호 관계를 회복했다. 2022년 초 북한 노동신문은 2019년의 정상회담이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였고, 양국 협력을 위한 “당과 인민의 의지와 입장”을 과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 외무성도 “피로써 맺어진 조선-베트남 친선협조관계를 특수한 동지적 관계, 전략적 관계로 승화 발전”시켰다고 평가하였다(연합뉴스, 2022. 3. 1).

북한과 베트남은 냉전 초기 1950~60년대에 긴밀한 친선 관계가 있었다. 북한은 베트남에 무상원조와 전쟁자금을 지원했고, 베트남전쟁에 공군 파견, 심리전 전문가 파견 등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하게 떨어져 1990년대까지 명목만 유지한 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다. 1984년에 형식적인 외교 관계를 복원했으나 1986년 베트남이 도이머이 정책을 선포하면서 소원한 상태가 지속됐다. 1990년대 초에 고위급의 방문과 경제협력을 논의했으나, 베트남이 1992년 한국과 수교하고 1995년 미국과 수교하면서 다시 멀어졌다. 북한-베트남 관계는 2000년대 이후 형식적인 대표단의 상호 방문이 재개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해졌지만, 베트남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원칙적으로 공조하면서도 북한과 형식적인 우호협력관계를 견지하였다. 고위급 및 분야별 대표단의 상호 방문 횟수도 증가하였고, 작은 규모지만 교역도 지속적으로(상당 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졌다(Nguyen Thi Thao Suong, 2020, pp.83~85).

북한과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베트남은 향후 북한이 경제적 변화를 시도할 때 참고할 만한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북한도 베트남의 경제정책 변화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참고할 만한 사례로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4.27 판문점회담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알려지면서 베트남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하노이 국빈 방문 중에도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관심을 표했다고 한다. 그 방문 전부터 베트남의

산업, 농업, 통신 분야 등에 북한 대표단의 방문이 있었고, 정치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민간경제 발전이나 대미관계 개선 등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구했다고 한다.<sup>8)</sup>

국내에서도 베트남 모델의 북한 적용 관련 연구와 논의가 있어 왔다. 북한이 현 상황을 타개하고 경제개혁과 개방을 한다면 참고할 만한 외부 사례는 중국이나 베트남이 되리라는 데에 국내 연구자들도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김석진, 2008, p.1).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개방과 외자 유치에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여하한 과정을 통해 북한 지도층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결심하고 추진한다면 베트남의 경험과 사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은 베트남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베트남 경제개혁과 개방 과정을 지원하고 함께한 경험을 향후 북한 지원과 협력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 베트남 사례의 시사점을 활용하면서,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경험도 참고하여 적절한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 이러한 베트남의 특성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야 한다. 베트남은 베트남전쟁 시기에 한국과 적대적이었던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적 접근을 우선시하면서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공식적 친선협조관계를 복원한 베트남은 앞으로 대북 정책 관련 국제공조 과정에서 중재와 소통을 위한 창구가 될 수 있다.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평화, 평화통일 등 한국의 가치와 입장을 적극 고려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전제로 하여 대북 관계와 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등 한국과의 공감대가 강화되고 있다(Nguyen Thi Thao Suong, 2020, p.99). 실용적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강화되어 온 경제관계가 정치안보 측면에서도 공조의 강화로 발전하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촉진할 방편으로서 베트남에서의 한국학 진흥 사업도 강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반도, 남북관계 등 통일 관련 한국학 강의나 연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창출되어야 하고, 이에 부응할 만한 인적, 물적, 제도적 자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잘 활용하고 계속 선순환시키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한국학 상황과 잠재력에 맞는 접근 방법과 자생력 향상을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일방적인 재정 지원이나 교원 파견, 교재 제공 정도를 넘어, 베트남 대학들의 자체적인 추진력으로 수요에 부응하고 더욱 수요를 창출하는 자생적 발전이 바람직하다. KF에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지원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세계 어디서나 참고할 수 있는 'KF 글로벌 e-스쿨'을 신설하여 점차 다양한 한국학 수업과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한국

8) 2019년에 베트남을 방문한 북한 연구대표단을 만난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연구소 이사의 베트남 언론 인터뷰 기사 내용을 인용한 논문에서 재인용하였다. Nguyen Thi Thao Suong(2020), pp.87-89 참조.

국제교류재단, 2018, pp.14~15). 해외 한국학의 전반적인 수요와 국가별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질적인 향상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연계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해외 한국학 과정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통일 공공외교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아직 한국의 적극적 접근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 자생적 역량이 갖추어지고 협력의 상승효과가 날 수 있는 장기적인 공공외교 시각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직접적으로는 북한, 통일, 남북관계 등에 전문성을 갖춘 국책연구원들이나 대학의 연구소들이 이 부분에서 콘텐츠(교재) 개발이나 자료 제공, 온라인 강의 제공, 단기 집중 프로그램, 교원 파견을 통한 수업 제공, 또는 현지 교수진과의 공동연구나 정례적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여러 협력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이상신, 2022, pp.9~12). 인적 교류 차원에서 한반도나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이나 차세대 연구자를 선발하여 한국 국내 기관에서 단기 체류 프로그램이나 펠로십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기적 실적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역과 국가의 특성에 맞추어 효과를 낼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

## V. 결론

해외 한국학의 발전 수준과 과제는 지역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의 공공외교 자산으로서 정책적 지원은 해외 한국학의 일차적인 확산과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한류로 증폭된 관심을 지속시키면서 질적으로 심화하여 상호 이해와 이익의 증진을 추구해야 하는 만큼, 지원 사업은 현지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중장기적 안목으로 진행해야 한다. 자생력과 지속성을 갖추는 데 성공한다면 해외 한국학 진흥 사업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공공외교 수단이 된다. 새롭게 한국학 수요가 증가하는 초기 단계 지역과, 어느 정도 규모와 발전을 이루고 있는 지역 등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 공공외교는 현지 학계 및 사회의 역량과 한국의 정책적 지원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점으로, 한국학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학술, 연구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단계의 해외 대학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도할 수 있다.

수교 후 30년이 지난 한국-베트남 관계는 여전히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협력관계가 최우선시 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를 심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의 폭과 깊이를 더해 가야 한다. 베트남 내 한국어와 한국학 발전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성장해 왔다. 실용적 필요에 부응하는 단계를 넘어 이해 증진과 협력에 기여하고,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수요에 부응해야 할 때이다. 그중 통일 공공외교의 시각에서 한국의 가치와 방향성을 반영하여 한반도와 남북관계 등의 이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한 한 부분이다.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과 국가의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아직 한국학은 양적인 증가 추세이고, 대부분 기능적인 한국어 훈련에 집중하거나 여기에 문화, 역사 정도를 더한 기초적인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몇몇 대학들처럼 어느 정도 규모와 체계가 잡힌 후에야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다.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는 이 부분에서 접점을 확대하여, 현지에서 남북관계, 통일, 동아시아 국제관계 등 사회과학적 접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면서 적절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인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공공외교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적절한 내용과 지원으로 부응하지 못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베트남을 포함하여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각국의 한국학은 아직 한국의 정책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이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장기적으로 현지 특성에 맞는 자생적 체계를 지향해야 한다. 통일 공공외교 차원에서는 해외 한국학 현장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의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다양한 방법의 교류를 통해 지속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과제이다. 베트남 사례에서 보듯이 확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해외 한국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해와 교류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통일 공공외교 측면에서도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곽수민, 「해외한국학 동향 분석 및 발전요인 연구」, 『정신문화연구』, 35(3): 2012, pp.211~241.
- 김동택, 「한류와 한국학: 해외 한국학 현황과 지원방안」, 『역사비평』, 2006, pp.213~240.
- 김석진, 『중국·베트남 개혁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재검토』, 산업연구원, 2008.
- 김유리, 「해외 한국학 진흥과 공공외교」, 문경연·송기돈·박지연 편, 『공공외교 이론과 사례』, 도서출판 오름, 2020, pp.535~574.
- 김진량, 「해외한국학의 현지화 연구」, 『정신문화연구』, 42(1): 2019, pp.283~307.
- 김태환, 「한국 정책공공외교의 진화와 방향성: 공공외교에 대한 정체성 접근의 시각」,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1(1): 2021, pp.1~28.
- 김홍구, 「동남아시아 지역 한국어(학) 교육 발전 추이」,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2018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2018, pp.213~231.
- 외교부·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2016. 2. 3 제정, 2016. 8. 4 시행), 외교부 공공외교총괄과.
- 외교부, 『외교백서』, 1992~2021년 연간 간행물, 대한민국 외교부 국문 외교백서, 1992~2021 ([https://www.mofa.go.kr/www/brd/m\\_4105/list.do](https://www.mofa.go.kr/www/brd/m_4105/list.do), 접속일: 2023. 10. 10).
- 외교부,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2017.
- 외교부, 「제2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2022. 8. 24.
- 이상신·이재원, 『통일공공외교 수요조사』, KINU 정책연구시리즈 21-04, 통일연구원, 2022.
- 이은정, 「유럽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2018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2018, pp.91~103.
- 장호중, 「중앙아시아의 한국학」,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2018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2018, pp.193~212.
- 정진현, 「유럽에서의 한국학 동향과 전망」, 『한국문화연구』, 31: 2017, pp.271~287.
- 쿠르바노프, S. O., 「러시아의 한국학(2006~2016)」,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2018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2018, pp.138~168.
- 한국국제교류재단 편, 『2018 해외 한국학 백서』, 을유문화사, 2018.
- Nguyen Thi Thao Suong, 『1975년 이후 베트남과 북한의 외교 관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논문, 2020.

- Tran Thi Huong, 「베트남의 한국학 및 한국어교육 관련 동향: 하노이국립대학교 외국어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39: 2020, pp.213~235.
- 『연합뉴스』, 「북, 김정은 베트남 방문 3주년 친선 과시... '변함없이 계승발전」, 2022. 3.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1052100504?input=1195m>, 접속일: 2023. 10. 23).
- USSH VNU-HCM Korean Studies, 베트남 국가대학 호찌민시 국립인문사회과학대학교 한국학부 홈페이지(<https://hcmussh.edu.vn/hanquoc>, 접속일: 2023. 11. 2).
- KF 통계센터, 해외대학한국학현황 통합검색, 한국국제교류재단 제공(<https://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List.do>, 접속일: 2023. 10. 9).